

사람과 성장을 이어주는 한국산업인력공단

HRDK Korea

2021
APRIL
vol. 298

04



발행일 2021년 4월 1일

발행인 어수봉

편집인 김선영

등록번호 울산증, 라00006

등록일자 1982년 9월 29일

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홍보실

주소 울산광역시 중구 중가로 345

전화 052.714.8195

팩스 052.714.8200

제작 디자인글꼴

디자인 류경민

글 김민정, 김혜민

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591-1

전화 051.636.1210

www.ggad.co.kr



QR코드를 스캔하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사보 구독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① 사람을 생각하다

04 : CEO 인사말

어수봉 이사장 취임인사

06 : HRD Focus

제15대 어수봉 이사장
취임식 개최,
창립 39주년 기념 임직원
출근 맞이 행사 개최

08 : ON HRD

세계로 도약하는 청년들의 꿈,
해외취업

10 : 한눈에 HRD

해외취업 통계

12 : 공들인 인터뷰

대구보건대학교 청해진대학
(치기공전문가 연수과정)

② 자리를 찾다

16 : 명장의 수선실

건축의 완성도,
현장의 기술이 좌우합니다

20 : 꿈지락 꿈지락

전국 최연소 농업분야
기술사 3관왕 도전기

22 : HRD 투게더

능력중심사회를 향해 싸라!
능력평가기획부 닥트 도전

26 : 상생과 협력

공단 상생협력관 참여기업
마마포미 안현옥 대표

③ 스스로 행하다

30 : 여행 쉼시피

다시 여는 바다 - 오륙도

32 : 트렌디한 자격

더 편리하고
똑똑해진 집, 스마트홈

36 : 성공! 해외취업

Connecting the Dots!
팬팔-관광학부-해외영업
그리고 말레이시아

④ 하나로 모으다

38 : 직통 직방

청년들이 일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40 : 청렴학 칼럼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한
직무책임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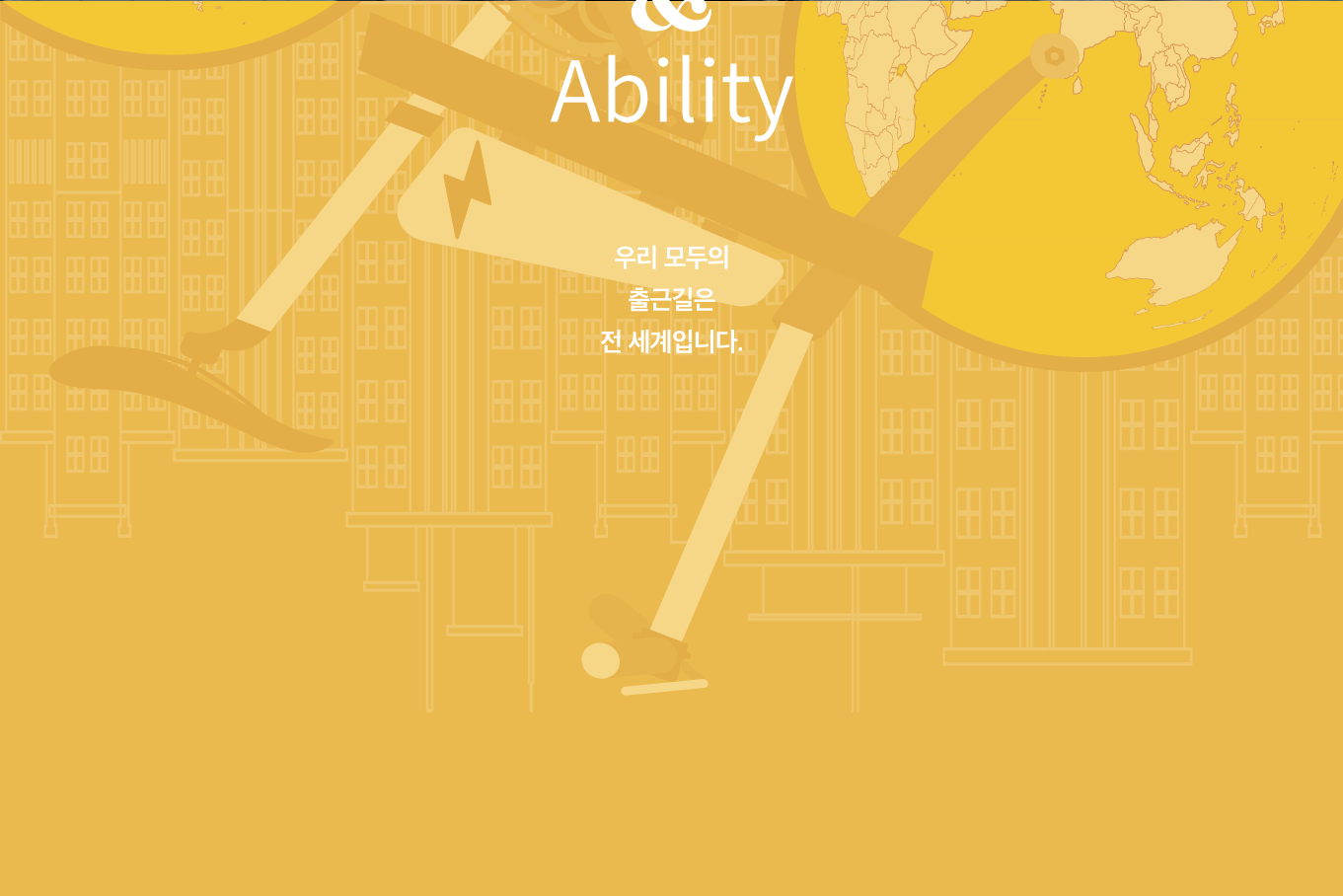
42 : HRD NEWS

44 : 독자이야기



해외에서도
빛나는
당신의 능력

Abroad & Ability



우리 모두의
출근길은
전 세계입니다.

HiRDK

공단 고객 여러분께 드리는 취임인사

“안녕하십니까?

3월 3일자로 “전 국민의 평생고용 역량을 키우는 NO.1 HRD 파트너”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을 맡게 된 어수봉입니다.

저는 지난 30여 년 동안 학자로서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참여하며, 다양한 정책 연구를 통해 공단과 깊은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이에 일자리 사업에 있어 공단의 역할과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청년이 일자리를 잃고, 소상공인이 경영 위기에 몰려, 국가 전체적으로 고용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 능력개발과 일자리 창출 지원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CEO Greetings

저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하며 “기업과 근로자의 인적자원개발을 지원하여 일을 통해 행복한 나라를 만든다”라는 우리 공단의 미션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 다섯 가지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산업·지역·기업 현장중심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스템 구축과 서비스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국가자격제도의 현장성을 제고하고, 자격검정의 디지털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글로벌 인적자원 교류를 확산하고, 숙련기술이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넷째,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경영 효율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섯째, 윤리경영 실천에 앞장서겠습니다.

전례 없던 코로나19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 미래를 훨씬 앞당겼습니다.

우리 공단은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에 발맞춰,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여 더욱더 국민에게 사랑받는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임직원과 함께 전심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고객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3월 3일

제15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회장
한국직업방송 대표
학교법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이사장



공단 제15대 어수봉 이사장 취임식 개최

공단 제15대 어수봉 이사장의 취임식이 지난 3월 3일, 공단 본부 2층 창조홀에서 개최됐다.

행사는 임원 및 실·국장, 노동조합 위원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어수봉 신임 이사장과 김동만 전임 이사장의 업무 인수인계로 문을 열었다.

오후 2시부터 본격적인 취임식이 개최되어 어수봉 이사장에 대한 약력이 소개됐다. 어수봉 이사장은 미국 밴더빌트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을 시작으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는 등 30년간 고용과 인력개발, 노사관계

분야에서 연구와 정책 활동을 수행한 고용·노동 전문가이다.

어수봉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공단 임직원들에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뜨거운 열정과 헌신적인 자세로 일자리 창출 지원이라는 국정 과제 수행에 노고를 기울인 점을 격려하며 김동만 전임 이사장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서 '직업능력개발'과 '일자리 창출' 지원이라는 공단의 사명을 언급하며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공단의 역할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국민에게 사

랑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할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국내 일자리 문제가 날로 심화하는 상황에서 전 국민에게 최고의 인적자원개발(HRD) 서비스를 지원하여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고용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취임사에 이어 꽃다발 증정식과 오늘을 기념하는 단체 사진 촬영이 진행됐다. 창조홀에서의 행사 후 10층 전문자격국부터 1층 고객지원부까지 본부 부서 직원과 이사장과의 상견례가 진행되었고, 이로써 임직원 모두가 함께 새로이 열어갈 공단의 앞날을 응원하며 취임식은 마무리됐다.

한편, 공단은 취임식 영상을 유튜브로 송출하여 개인별 시청이 가능하도록 해 코로나19로 인해 직접 참석하지 못한 아쉬움을 달랬다.

어수봉 제15대 이사장

2017년 6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최저임금위원회 제10대 위원장을 맡았으며,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장, 노동부장관 자문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초대 중앙고용정보원장(현 한국고용정보원) 등을 역임했다. 공단 능력개발사업을 비롯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활용, 국가자격제도 등 공단 사업 관련 정부 정책 활동에 30년 이상 참여해 온 만큼, 인력개발과 고용 창출을 선도할 최고의 책임자로 평가된다.

공단, 창립 39주년 기념 임직원 출근 맞이 행사 개최



공단이 16일, 창립 39주년을 맞아 울산혁신도시 공단 본부에서 창립 기념일 '임직원 출근 맞이 행사'를 열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직원이 모이는 창립기념일 행사 대신 짧게나마 서로 인사와 덕담을 주고받을 수 있는 출근길 행사를 기획했다.

이날 어수봉 이사장은 직접 출근길 직원들에게 떡, 음료(커피, 두유) 등을 건네며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공단 로비에 세워진 '지금껏 잘해왔고, 잘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는 그간 임직원들의 노력을 다독이기 충분했다.

구성원 모두 향후 창립 40주년, 나아가 100년을 바라보며 국민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고용 역량을 높이는 국가 대표 인적자원개발전



문기관이자 국민에게 사랑받는 기관으로서의 의지를 다졌다.

한편, 공단은 1982년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으로 출발했다. 한국기술검정공단 및 산하 13개 지방사무소, 창원기능대학, 노동부 산하 24개 직업훈련원,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및 12개 지

방위원회, 직업훈련연구소를 통합한 단일기관 운영체제로 재도약한 것이다. 1982년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에서 1991년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1998년 다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국가인적자원의 개발에 대한 공단의 적극적인 지원을 강조해왔고, 2020년 인적자원개발전문기관으로 다시 한번 크게 발돋움하며 사람의 성장과 발전을 이끄는 주축으로써 자리매김해 왔다. 2021년, 창립 39주년을 맞아 더욱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며 고객에게 사랑받는 공공기관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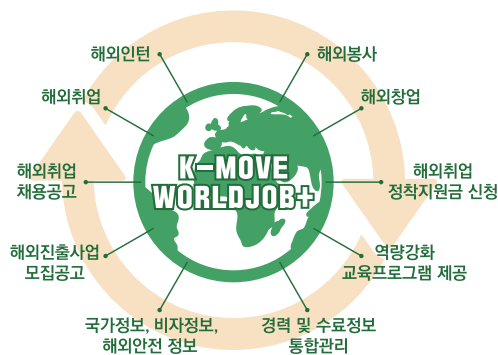


세계로 도약하는 청년들의 꿈,

해외취업 WORLDJOB+

해외취업을 위한 통합 정보망, 월드잡플러스 (WORLDJO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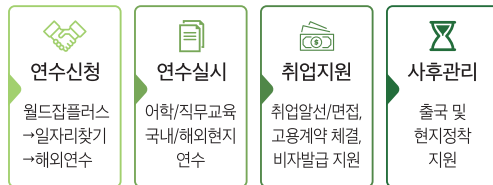
정부 부처와 기관별로 흩어져있는 해외취업·창업·인턴·봉사 등의 해외진출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합니다.



공단은 청년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 해외취업사업을 수행합니다. 그동안 여러 정부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해온 해외 진출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K-Move를 추진하는 가운데, 공단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맞춤형 교육훈련을 통한 인재 양성,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제도 등의 세부 사업을 수행합니다.

해외취업을 위한 체계적인 연수, K-Move 스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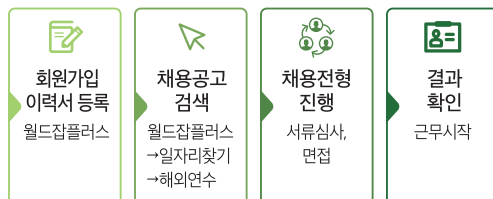
해외 기업이 요구하는 어학, 직무능력과 해당 국가의 생활문화교육까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맞춤형 연수과정 수료 후 취업까지 연계합니다.



- 프로그램 종류 : 장기과정(600시간 이상), 단기과정(200시간 이상), 대학과정(장·단기), 트랙 II (1,000시간 이상)
- 연수분야 : IT, 비즈니스, 자동차분야 등 해외취업이 가능한 전 분야

해외기업과 청년과의 연결고리, 해외취업 알선

대한민국 인재채용을 희망하는 해외기업과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연결합니다.



- 해외취업박람회 : 다양한 해외기업과의 면접 기회 제공

*세부 일정은 월드잡플러스 공지사항에서 확인



해외취업에 관한 상담, 해외취업센터

해외취업 1:1 상담,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공 서비스	혜택 내용
1:1 취업상담	취업 희망국가 비자제도 안내, 유망직종 등 1:1 맞춤정보를 제공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해외취업아카데미, 해외취업 K-Class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매월 실시 (월드잡플러스에서 사전 신청)
해외취업 설명회	해외취업지원사업 정보, 국가·직종별 취업전략, 취업선배 멘토링 등
시설대관	해외취업 준비를 위한 스터디, 모임공간 무료 제공 (월드잡플러스 회원 대상)

- 신청방법 : 월드잡플러스 ▶ 해외취업상담 ▶ 온라인·방문상담/상시 채용관&스터디룸 예약
해외취업가이드 ▶ 해외취업아카데미/해외취업 전략 설명회

해외취업센터 위치안내

서울 해외취업센터
·E-mail : kmove@hrdkorea.or.kr ·전화 : 02)6964-7072~75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0, 금강타워 402호
군산 청년해외취업지원센터
·E-mail : gunsankmove@hrdkorea.or.kr ·전화 : 063)443-1558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내항1길 4, 군산상공회의소/군산청년들 4층

부산 해외취업센터

·E-mail : busan@hrdkorea.or.kr
 ·전화 : 051)715-7017~20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33, 시청역 롯데 골드로즈빌딩 610호

통영 청년해외취업지원센터

·E-mail : tykmove@hrdkorea.or.kr
 ·전화 : 055)649-6544
 ·주소 : 경상남도 통영시 충렬로 31, 통영청년세움 2층

해외취업정착지원금

해외취업에 성공한 청년의 원활한 현지 정착과 장기근속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만 34세 이하, 소득분위 기준 및 취업 인정 기준에 부합하는자, 월드잡플러스 회원가입 후 해외취업(근로계약 체결)에 성공한 자
- 취업안정기준 : 취업비자 취득, 연봉 1,500만 원 이상, 근로계약 1년 이상 등



청년들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해외진출

해 외 취 업 지 원

5개년 해외취업자 수(2016~2020)



국가별 해외취업 현황



기업별 해외취업 현황

3,570명



관리자

8,442명



전문가 및 관련

8,834명



사무

4,756명



서비스

800명



판매

357명



기능원

162명



장비/기계

7명



기타

연령별 해외취업 현황

29세 이하

22,046명



30~34세

4,111명



35~39세

552명



40세 이상

219명



취업유망국가 및 직종



일본: IT, 종합사무직, 관광서비스 등



미국: IT, 헬스케어, 통계관련직 등



싱가포르: 관광서비스, IT 등



중국: 수출입, 물류, 유통, IT, 서비스직 등



UAE: 보건의료, 항공서비스직 등



독일: 물류사무직, 엔지니어, IT 등



호주: 조리, 건설기능직 등



캐나다: 치기공, 호텔 관광서비스, 유아교육 등



베트남: 한국진출 기업 종간관리자, 사무직 등



인도네시아: 종간관리자, 무역, 제조업 등

성별 해외취업 현황



남자
(48.8%)



여자
(51.2%)



13,139명



13,789명

청해진대학으로 치기공에 뜻을 달다

대구보건대학교 청해진대학(치기공전문가 연수과정)



—— 조창현 (34, 치기공과 2학년) ——

서른 살, 멕시코로 떠난 해외여행에서 우리 사회가 가진 관습에서 벗어난 자유로움을 느꼈어요. 그때부터 월드잡플러스 등을 통해 해외취업에 도전했고, 기존 경력을 살려 행정직에 합격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언어의 장벽에 구매받지 않는 ‘기술’에 관심이 가더라고요. 최종적으로 치기공을 선택했고, 해외취업 경쟁력을 분석해 대구보건대학교를 선택했습니다.

—— 조소현 (36, 치기공과 2학년) ——

경력과 내 가치가 비례하는 직업이 드문 것 같습니다. 치기공 기술로 어디서든 내 의지로 은퇴 없이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서른다섯에 이 길을 선택했어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치기공 면허를 취득하면 국내외 할 것 없이 선택의 폭이 넓다는 점도 장점이고요. 실습하면 할수록 마치 장인의 기술처럼 내 것, 내 기술이라는 느낌도 좋습니다.

‘청해진대학’은 청년들이 해외 유망·전문 직종으로의 진출을 돕는 대학을 선정 및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대학은 1학년 과정부터 학생들이 해외취업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도록 중장기 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중 하나인 대구보건대학교 청해진대학은 2019년 해외취업연수사업 연수과정과 운영기관 평가에서 모두 A등급을 획득했다. 전폭적인 지원으로 해외취업의 길라잡이가 되어주는 대구보건대학교 청해진대학을 찾았다.



—— 김 소 영 (29, 치기공과 1학년) ——

브라질에 이어 남아메리카 파라과이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단순 서비스직이 아닌 내 일을 해야겠다고 깨달았고,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치기공은 내 일에만 집중할 수 있고, 근무 환경도 자유롭다고 생각해요. 또, 해외에서는 의료에 대한 수요도 높고요. 이제 입학 3주차지만, 전문기술을 익혀 선진국으로의 해외취업을 꿈꾸고 있습니다.



—— 신 은 지 (24, 치기공과 3학년) ——

특성화고 세무회계 전공으로 보건계열 공기관에 취업했고, 보건직종 분들과 교류하면서 치기공이 국내뿐 아니라 해외취업으로도 유망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 3학년은 심화된 실습과 전공영어 및 회화, 비자 발급 등 실질적인 준비를 할 때입니다. 어릴 적부터 해외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 있었는데, 캐나다 취업으로 그 꿈을 이루고자 합니다.

대구보건대학교 치기공과 최병환 교수(국제교류협력팀장) 인터뷰

Q.1 대구보건대학교 청해진대학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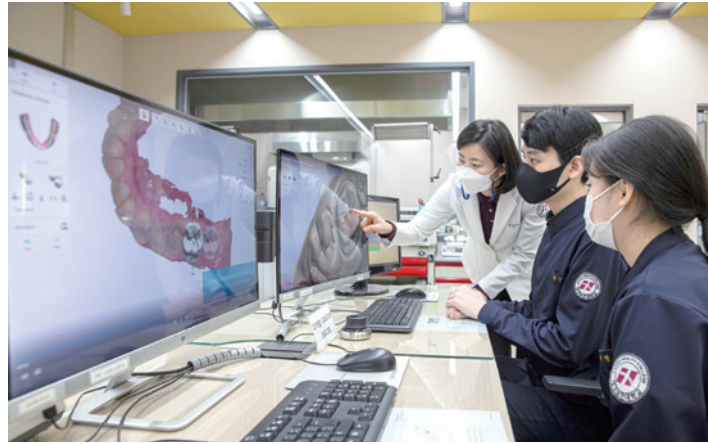
대구보건대학교 치기공과는 청해진대학사업 <치기공 전문가 연수과정>에 선정된 2016년부터 체계적인 해외취업 과정을 위한 중장기적인 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습니다. 올해는 예비자과정(1·2학년) 60명과 본과정(3학년) 20명(정규인원 15명) 등 총 80명을 선발했습니다. 선발된 학생은 3년간 미국 CDT(Certificated Dental Technician), 캐나다 DT(Dental Technician), 독일 마이스터 자격증 취득을 위한 전공영어, 직무교육, 현장실습 등에 참여합니다.

Q.2 어떠한 계기로 이러한 사업을 운영하게 되었나요?

인재를 채용하고자 하는 해외 산업체와 해외취업을 꿈꾸는 학생들의 요구가 맞물렸습니다. 2014년 세계로 프로젝트에 선정되면서 해외취업을 위한 교육과 시설이 확충되었습니다. 미국, 뉴질랜드, 호주 등 해외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교육으로, 해당 산업체에서 우수한 근무조건으로 채용해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현재 6년 연속 K-Move 스쿨 <미국 치과기공 전문가 연수과정>에도 선정되어, 해외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은 입학과 동시에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 해외취업 교두보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Q.3 훈련생 및 훈련시스템에 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예비자과정(저학년): 영어실력 향상에 중점을 둡니다. 2학년은 전공영어 및 전공실습이 추가됩니다. 우수생은 공단 및 학교의 지원으로, 하계, 동계 방학 6~10주 동안 미국, 캐나다 등으로 현장실습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2 본과정(최종학년 이상): 치기공과 본 교과과정 외에 최신기술을 교육합니다. 또한, 캐나다 치기공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전공영어를 준비하며, 이는 독일의 치과기공 마이스터 과정 입학에 위한 준비에도 도움이 됩니다.

Q.4 청해진대학을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신가요?

팬데믹에 따른 해외취업환경 변화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해외 산업체와 지속적인 소통과 해외취업 노후를 토대로 현장실무 역량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 수준의 치과기공사 양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결실로 미국, 캐나다, 독일 등으로 10명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Q.5 청해진대학을 통한 성과와 그 비결은 무엇인가요?

양보다 질로 승부해왔습니다. 우수한 해외취업처를 확보하기 위해 발로 뛰고 근무조건을 협의했습니다. 체계적인 학생관리로 실력과 인성을 모두 갖춘 인재를 양성했습니다. 취업률을 위한 인원 확대가 아닌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해왔고, 현재 대구보건대학교 치기공과 출신이라면 어디서든 인정받고 있습니다.

대구보건대학교 청해진대학 치기공전문가 연수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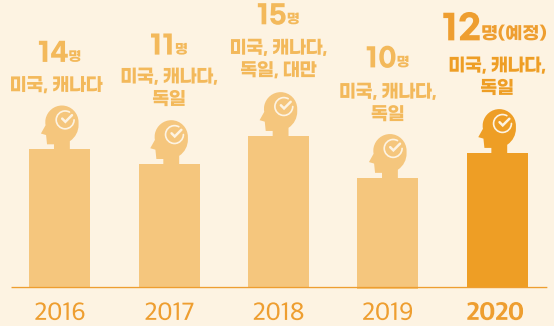
학년별 연수생 선발기준

- 1학년의 경우 어학능력 40%, 참가의지 및 태도 60% 등 선발
- 2학년부터 어학능력 외 전 학기 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 실력뿐만 아니라
글로벌 마인드 함양 강조**

해외취업자수



예비자과정 교육프로그램

도재(올세라믹 빌드업), 관교의치(상·하악 크라운 제작), 디지털교정(캐드캠 디자인 및 실습) 등 전공실무 외 해외취업을 위한 기반 교육

외국어교육

기초영어
advanced 생활영어,
고득점을 위한 토익 교육

전공영어
미국 치기공소 실무용어
및 회화

전공영어(심화과정)
보철물 전 제작과정을
영어로 교육

CDT&DT(자격증 교육)

CDT
NBC(National Board for
Certification) 관리 하에
운영, 총 6과목으로 이론
과 실습을 통해 취득

DT
치기공 관련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로 주(state)별로
이론과 실습을 통해 취득

전공실습/현장실습

전공실습
치아형태학 실습

국외 현장실습
청해진대학 지원자 중
성적순으로 취업 예정처
(미국, 캐나다) 실습
기회 제공

“대구보건대학교가 2019년 해외취업연수사업 연수와
정과 운영기관 평가에서 모두 A등급을 획득했습니다.
오래 축적한 노하우를 토대로, 현장실무 역량과 국제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 수준의 치기공전문가 양성을 위
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구보건대학교 치기공과 교수 **최 병 환**



건축의 완성도, 현장의 기술이 좌우합니다

대한민국 명장
(주)진보건설 이준문 기술이사

건축물의 대형화, 새로운 시공법의 개발 등 건축을 둘러싼 환경이 변화하고 공사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를 주도적으로 수행할 인력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지난 40여 년간 전국의 건축현장을 오가며 내외부 골조 및 마감을 책임져 온 이준문 명장의 이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다. 건축 분야를 넘나드는 현장의 전문가로 지난해 건축목공시공 분야의 명장으로 선정된 그를 만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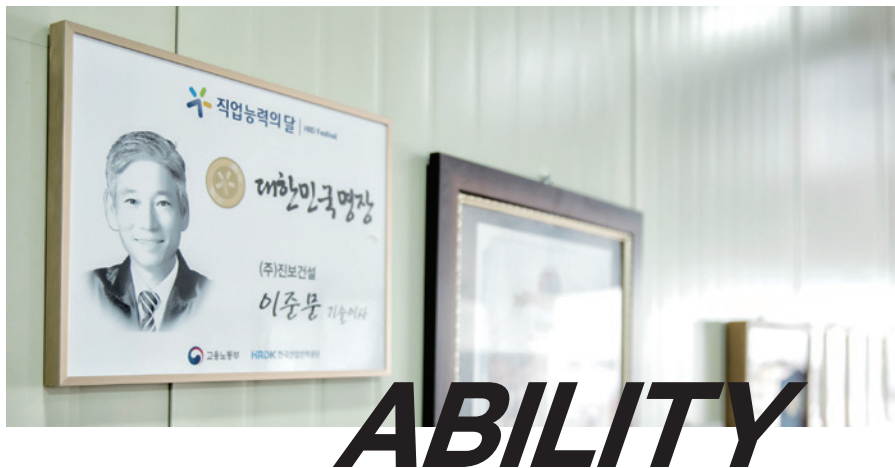
생계를 위해 현장으로 뛰어난 소년

국민학교에 채 입학하기도 전에 벌써 건설현장이 눈에 익숙했던 아이. 이준문 명장의 어린 시절은 목수였던 아버지를 따라 전통한옥을 짓는 건설현장을 누볐던 추억으로 물들어있다. 보리밥 대신 하얀 쌀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줄기차게 아버지를 따라다니 이유였다고 하지만 현장을 오가며 호기심에 집어본 목공도구가 그를 지금의 길로 이끌었으니 돌아켜보면 모든 건 다 운명처럼 흘러온 것 같다.

“중학교 3학년 때 일을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레 중풍 환자가 된 아버지를 대신해 생계를 이어야 했어요.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보아온 현장이지만 막상 현업에 뛰어들어 일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더군요.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이들에게 하대의 시선이 쏟아지던 시절이기도 했고요. 말로 상처를 받은 것도 여러 번이었죠. 하지만 그 때문에 더 이를 악물고

열심히 했으니 저에게 좋은 자극이 된 건 분명합니다.”

당시만 해도 건설현장에서는 5년 정도는 허드렛일을 묵묵히 수행해야 비로소 하나둘씩 전문성 있는 일을 맡을 수 있었다. 그것이 관례였다. 이준문 명장 역시 일을 시작한 후 5년이 지나서야 겨우 목수로서 망치 하나를 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게다가 경력이 쌓인다고 해서 현장에 자신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현재 실정에 맞지 않는 전달사항이 내려올 때마다 실무자로서 자신의 견해를 열심히 피력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무시당하기 일쑤였다. 이유는 단순했다. 대학에서 건축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 논리가 어쨌든 현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이에 대응할 만한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 그는 한참의 고민 끝에 돌파구를 떠올렸다. 자신의 실력을 한마디로 설명할 만한 것, 그건 바로 자격증이였다.



실력을 증명하며 만들어진 자신감

이준문 명장이 가장 애뜻하게 여기는 자격증은 건축목재시공기능장. 당시만 해도 가르쳐 주는 곳이 따로 없었던 만큼 준비과정 역시 다사다난했다. 일하는 틈틈이 시간을 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곳을 무작정 찾아다녔고, 시험이 치러지는 곳을 찾아다니며 다른 사람들의 시험 모습을 속속들이 관찰하기도 했다. 그렇게 5년이란 시간을 들여 기능장에 오른 순간의 가슴 벅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특히 같은 해 전북에서 열린 지방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해 건축목공시공 분야 금메달까지 획득하면서 기쁨은 배가 됐다. “회사에서 독립해 사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IMF 시기와 맞물리면서 부도를 맞이했죠. 일을 시작하고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꼽으라면 그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힘든 일이 여럿 있었지만 결국 자력으로 일어났고 지금의 성취를 일궈냈습니다. 일에 대한 자신감은 그런 경험이 쌓이며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의 승승장구는 계속해서 이어졌다. 지난 2016년엔 건설현장에서 사용했던 기존 도구들의 불편함을 개선해 특허까지 받았다. 시·군청에

서 발주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공사과정 단축 및 원가 절감 성과를 인정받기도 했다. 이는 말은 일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분야까지 섭렵해가며 건축의 전체적인 흐름을 읽을 수 있게 된 덕분일 것이다. “건축목공시공 분야 명장으로 선정되긴 했지만 저는 목재 외에도 시멘트, 철근, 콘크리트 등의 소재도 다룹니다. 자재며 설계, 시공, 마감 등의 과정에 대해서도 잘 알죠. 건축구조에 따른 하중도 계산합니다. 전체적인 과정을 아우를 수 있게 되면 업무효율도 그만큼 개선할 수 있습니다.”

CONFIDENCE



약력

- 2012 건축목재시공기능장
- 2012 전북기능경기대회(건축목공) 금메달
- 2016 우수숙련기술자(건축목공) 선정
- 2017 일학습병행 현장실사 심사위원
- 2017 경기도기능경기대회(목공예) 심사위원
- 2019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 2020 일학습병행과정 적합성 심사위원회 위원
- 2020 대한민국 명장(건축목공시공) 선정

나에겐 어떤 예술품보다

값진 것

명장의 시간표에는 여백이 없다. 평일이면 그의 손길이 필요한 건설현장을 찾아다니며 자재를 다루는 데 여념 없고, 주말에는 작업실에서 기능경기대회며 각종 기술자격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하루가 금세 지나기 때문이다. 특히 오는 4월 열리는 지방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하는 선수 11명의 훈련교사로서 그의 책임감은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이 때문에 제대로 된 휴식을 가져본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함으로 가득 차 있다.

“저도 주말을 투자하지만 지금 작업실에서 연습 중인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지칩니다. 평일엔 모두가 현장에서 일하니까요. 힘든 것보다는 기특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계속 열심히 해서 우수숙련기술자로 성장하면 하죠. 명장이 되면 더 좋고요. 실력 있는 제자들이 많이 배출되면 건축목공 분야에도 활기가 돌 겁니다.” 일을 시작했을 무렵을 돌아켜 보면 무작정 돌진하기 바빴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기술을 터득하기 위해 남은 자재를 가져와 연습하기도 했고, 현장에서 몰래 가져온 도면을 보



며 독학한 시간도 있었다. 이따금 찾아오는 어려운 일들은 그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 뿐 위기가 되지는 못했다. 그는 자신이 가야 할 방향만 생각했고 결국 명장의 반열에 올랐다. “예술가들이 그러하듯 저에겐 완성된 집이 작품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늘 완벽을 추구하며 일을 하지요. 건축주가 집을 둘러보며 만족한 표정을 지을 때면 그렇게 기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100%의 집을 만들고 싶어요. 지금 하는 일

들은 모두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하는 거예요.”

그의 도전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지금보다 훨씬 더 폭넓은 시야로 건축을 마주하겠다는 마음으로 늦깎이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교로 진학해 현재 건축학도로서 새 삶을 개척해나가는 중이기 때문이다. 변치 않는 초심으로 전성기의 삶을 누리는 이준문 명장. 그의 다음 도전기는 무엇이 될지 무척 궁금해진다.

ARCHITECTURAL CARPENTRY



그크개

목재의 한쪽 끝에서 일정 거리로 평행선을 긋는 데 사용



자유자

치수 또는 모양을 정확히 만들기 위해 사용되며 특히 각도가 빗각일 때 유용



끌

목재에 홈을 파거나 다듬질할 때 사용



대패

목재면을 매끈하게 하거나 여러 모양으로 깎아내기 위해 사용



(적)

자리를 찾다 / 꿈지락 꿈지락

전국 최연소 농업분야 기술사 3관왕 도전기

농화학기술사, 종자기술사,
시설원예기술사

* 2020년도 국가자격취득 수기를 전합니다.
지면 관계상 실제 수기 내용을 조금 각색하여 전합니다.

인생의 진로를 바꿔준 자격증, 정보처리기사와 식물보호기사

농업 전공이었지만 교직에 뜻이 있던 저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야학 교사를 하면서 교직의 꿈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처음 자격시험을 쳤던 것이 생물 임용고시에 필요한 가산점을 위한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취득한 자격증은 마치 금방이라도 시험에 합격하게 해 줄 것 같은 든든한 동아줄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1남 4녀 중 막내인 제가 대학을 다니는 동안 집안에 대학생이 셋이 되었고, 과학 강사와 수학 과외를 하며 학비·생활비를 버는 생활과 공부를 병행하다 보니 능력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보증금 100만 원에 10만 원짜리 방에 살면서 보일러를 틀지 못한 겨울밤에는 물이 꿈꿨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3년의 실패를 겪고서 다시 한번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다. 그리고 농촌지도'사'도 '스승 사(師)'자라며 교육 업무가 많다는 조교 선생님의 조언으로 진로를 다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즈음 아버지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기반을 잡지 못한 자식이 노부의 병환을 겪을 때 느꼈던 경제적인 무력감은 지금도 마음의 한으로 남았습니다. 그때의 역경은 강한 의지를 갖게 해주었고, 진로를 변경하기로 한 지 6개월 만에 식물보호기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이 자격증은 그해 가을, 해당 분야 공무원이 되는 데 일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각성, 농화학기술사 도전

입사 후 교육부서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전공을 살릴 수 있으리라는 꿈에 잔뜩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좌절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농업 전공이지만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지식이 너무나 부족했기에 최고의 강의도 저에게는 무용지물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고, 출산과 함께 육아휴직을 거쳐 복직을 했습니다. 복직 후 발령받은 농업인 상담소는 농업인의 민원을 해결하고, 때로는 사랑방이 되는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현장에 계신 농업인을 만나면서 하루하루 새로운 것을 배워나가는 행복한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며 처음 느껴보는 생경한 감정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하면 서도 늘 저를 괴롭히는 마음의 짐이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아는 것이 너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지도사가 되고 싶다는 소망이 조금씩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짧은 상담소 근무를 뒤로하고, 다시 한번 보직 이동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본소에서 작물에 대해 기술 지도를 해야 하는 보직이었습니다. 설레면서도 두려운 마음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농업인들에게 정말로 도움 되는 지도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금이 기회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닥치는 대로 필요한 책들을 읽

고, 무엇이든지 “저도 해보겠습니다”,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라며 주변 사람들을 몹시도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농화학기술사 시험을 한 달 앞두고 필기시험을 등록했습니다. 시험을 치르고 답안을 제출하고 나오면서 느꼈던 보람은 제 마음의 가뭄에 단비를 내려주었고, ‘119회 농화학기술사 최종합격’이라는 보답으로 돌아와 주었습니다.

하나씩 다가오는 성과, 종자기술사와 시설원예기술사

사실 농화학기술사 면접의 합격은 생각지도 못한 결과였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난 뒤, 이 중에 딱 한 명이 떨어져야 한다면 그건 나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면접을 잘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낙심하여 기차에 올라 집으로 돌아오면서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면접은 비록 망쳤지만 내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면 무엇이든 해보자’ 그렇게 생각하니 머리가 잔뜩 끼었던 마음이 맑아졌고 바로 다음 회인 종자기술사를 준비할 용기가 생겼습니다. 마지막 4교시 시험지를 제출하고 돌아오는 길에 뿌듯함과 안도감이 몰려와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은 뜻밖에도 ‘120회 종자기술사 합격’의 기쁨으로 돌아왔습니다.

단기간에 두 개의 기술사를 취득하고 나니 농업 분야의 마지막 기술사 자격증인 시설원예기술사에 도전할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담당하는 사업에 이 모든 내용이 필요했기 때문에 121회 시설원예기술사에 덜컥 원서접수를 했습니다. 이때 가장 큰 난관은 다름 아닌 코로나였습니다. 4월 11일

예정이었던 필기시험이 5월 9일로 밀리면서 종자기술사 면접과 불과 10일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공부 계획이 꼬이기 시작했고, 하나는 포기해야 하나 고민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도와주는 것인지 ‘120회 종자기술사 최종합격’의 소식과 함께 ‘121회 시설원예기술사’ 필기에도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7월 21일, 마지막으로 시설원예기술사 면접을 봤습니다. 치열했던 지난 일 년 동안 다양한 지식을 습득했고, 그것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벌써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도전으로 얻은 값진 자신감

다양한 지식을 바탕으로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끝까지 해결해 드리고자 노력합니다. 과거의 제가 지식이 짧아 크기가 균일하지 못한 ‘체’였다면 지금은 중요한 정보를 거르고 모을 수 있는 견고한 ‘체’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만의 체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할 생각입니다. 작은 시간도 쪼개 쓰면 유용할 수 있고, 해보지 않고는 안 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이런 삶의 교훈은 앞으로 남은 제 인생을 헤쳐나가는 데 좋은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울러, 항상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소홀하게 대했던 사랑하는 아이들, 나의 배우자와 가족, 격려해주신 직장동료분들에게도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늘 노력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능력중심사회를 향해 싸라!

능력평가기획부 닥트 도전

오늘의 주인공은 공단의 능력평가사업을 총괄 지원하는 부서인 능력평가기획부. 이들에게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인한 대책 수립으로 바빴던 동시에 블록체인 등 디지털 혁신을 통해 국가자격증을 스마트폰에 담아낸 혁신의 한 해였다. 시대의 흐름에 꼭 맞춘 고객 서비스 적중으로, 능력중심사회 만들기에 나선 이들을 만났다.

다트를 통한 HRD



집중력

목표물을 향한 고도의 집중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공정한 경쟁

규칙에 따른 공정한 경쟁을 배울
수 있습니다.



상호존중

격려와 칭찬으로 존중하는 자세를
갖출 수 있습니다.



People



(왼쪽부터) 신정현 차장, 조세희 대리, 김종민 과장, 김주완 대리
채정경 차장, 남영문 부장, 김병태 차장, 조우형 과장, 김예솔 과장
김은서 인턴, 박찬홍 과장, 박민 과장

다트에 진심을 걸었다,

조세희와 아이들 vs 영문을 모르겠네

봄 햇살 가득한 오후, 능력평가기획부에게 주어진 미션은 다트! 남영문 부장과 김병태 차장의 가위바위보로, '조세희와 아이들팀'과 '영문을 모르겠네' 팀으로 나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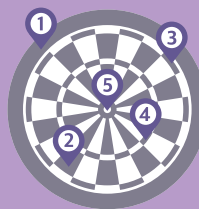
영문팀 첫 주자는 남영문 부장! 연이은 0점 행진으로 모두에게 '야! 너도 할 수 있어'라는 희망을 주었다. 이어 아이들팀 조세희 대리가 3점으로 출발, 두 번째는 더 소소하게 0점을 기록했다. 또다시 기회는 영문팀에게로! 채정경 차장의 득점을 기대했건만 0점을 기록했고, 자세만큼은 명종인 조우형 과장이 나섰지만 0점... 점수가 나지 않는 가운데 박찬홍 과장이 총 27점을 획득하며 영문팀으로 승리가 드리웠다. 박민 과장이 반격했지만 3점에 그치고, 다시 영문팀 김예솔 과장이 0점을 기록하자 반전을 노린 신정현 차장이 총 14점으로 영문팀을 쫓았지만, 이게 웬 일! 영문팀 김종민 과장이 무려 77점을 획득했다. 아이들팀 김병태 차장이 18점으로 역전을 꾀했으나 두 번째에서 0점을 기록! 다시 김은서 인턴이 26점, 김주완 대리가 아쉽게도 11점을 기록하면서 대반전 없이 영문팀이 승리했다.

한편, 팀전에 이은 '개인전'을 준비한 이들. 그 결과, 김종민 과장이 MVP를 차지했다. 그렇지만 어디 결과만으로 오늘의 게임을 평하랴. 모두에게 저마다의 이유로 푸짐한 선물이 주어졌으니, 승자와 패자 없이 모두가 능력 중심에 다트를 쏘았다!

다트 규칙과 에티켓

- ❶ 상대가 멋진 플레이를 했을 경우 칭찬을 건넵니다.
- ❷ 상대가 던지기(THROW)를 할 때에는 야유하거나 큰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 ❸ 상대의 플레이가 완전히 끝난 후, 안전한 상태에서 던지기(THROW)를 합니다.

다트 점수판 보는 법



- ❶ OUT BOARD 득점 없음
- ❷ SINGLE 표기된 점수 획득
- ❸ DOUBLE 표기된 점수의 2배 획득
- ❹ TRIPLE 표기된 점수의 3배 획득
- ❺ DOUBLE BULL(IN BULL)
정 가운데의 중심 원, 50점 획득

우리 모두 오늘의 히어로!

남영문 부장과 김병태 차장의 가위바위보 대결로, 한 명씩 호명되어 이룬 팀!

'조세희와 아이들'

VS

'영문을 모르겠네'

오늘의 승리는 '영문을 모르겠네' 팀에게 돌아갔다.



김주완 대리

멋지게 판정에 승복하려면다 **공정한 경쟁상**

김병태 차장

첫 다트부터 18점의 쾌거 **베스트 스타트상**

조세희 대리

유쾌한 웃음 '조세희와 아이들'의 중심
분위기 메이커상

조우형 과장

포즈만큼은 명중 **베스트 포즈상**

박 민 과장

에이스처럼 보였으나 3점 획득 **베스트 반전상**

신정현 차장

승리하지 못했지만, 두 번 모두 점수 획득
숨은 공신상

박찬홍 과장

함성과 박수를 모두에게 드리리 **상호 존중상**

채정경 차장

두 번째 주자로서 기대감 가득 **오늘의 이목상**

김종민 과장

17점에 이어 60점을 던진 **오늘의 MVP**

남영문 부장

0점 행진으로 희망을 야, 너도 할 수 있어! **상**

김예솔 과장

네 번째 주자로서 심혈을 기울인 다트 연구
베스트 연구상

김은서 인턴

곧바로 26점을 획득한 또 다른 반전 인물
베스트 반전상

능력평가기획부 남영문 부장 인터뷰 능력평가기획부를 소개합니다!



❓ 능력평가기획부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 능력평가기획부는 능력평가이사 소관 주무부서입니다. 국가기술자격 제도, 국가자격사업 예산 확보 및 운용, 조직·인력·정원 조정 및 관리, 자격정보 대외 연계 등을 통해 개인의 능력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공인하는 ‘능력평가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총괄 지원하고 있습니다.

❓ 2020년 어려움도 있었지만, 성과도 큰 한 해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꼽을 수 있을까요?

❗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 힘든 해였지만, 전 부서원이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 위기 속에서도 값진 성과를 거뒀습니다. 먼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연기·취소된 시험일정 조정, 방역대책 수립, 환불 규정 마련 등으로 적극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약 370만 명 수험자의 ‘안전’과 ‘응시기회’를 보장했습니다.

또한, 블록체인 등 디지털 혁신을 통해 국가자격증을 스마트폰에 담았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정부24 전자문서 지갑, 네이버, 카카오를 통해 국가기술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국민생활 밀접 민원제도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온라인에서도 자격정보를 쉽게 증명할 수 있는 ‘내 자격정보 온택트로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로 대통령상을 받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 올해 능력평가기획부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 올해 우리 부서의 목표는 국가자격 디지털 서비스를 더욱 확대하여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수험자뿐만 아니라 최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자격검정부서 직원들도 시험장 임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수험자의 편의 향상 및 자격검정부서 직원들의 업무 경감을 위해 디지털 국가자격시험센터 권역별 구축, UT(Ubiquitous Test) 시험 도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편안한 잠자리를 준비하는 엄마의 마음으로



공단 상생협력관 참여기업
마마포미
안현옥 대표

아이들의 건강한 잠자리를 위해 고품질 침구 및 패브릭 제품을 생산하는 마마포미. 지난 2018년 첫 영업 시작 후 KC마크 획득, 식약처 인증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기업으로 각인됐다. 재봉틀 강사로서의 경력을 살려 제품판매는 물론 교육사업까지 수행하며 바쁜 일상을 소화 중인 안현옥 대표와의 만남을 소개한다.



💬 ‘마마포미’를 시작하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몸담았다고 들었어요. 어떤 일을 해오셨나요?

💬 결혼 전까지는 재봉틀 강사로 활동했어요. 사회복지사는 두 번째 직업이었죠. 재봉틀로 유명한 브랜드에 소속돼 제품을 구입한 사람들에게 사용법을 알려주는 것이 제 일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집집이 재봉틀을 갖추는 것이 붐이어서 수강생도 어마어마했던 기억이 나네요. 하루에 수업 두 개를 진행했는데 수업당 스무 명 남짓한 인원이 들어왔으니 참 많은 학생들을 만났어요. 좋아하는 일이라서 마냥 즐거웠던 기억이 납니다. 사회복지사는 출산으로 경력이 단절되면서 새롭게 찾은 직업이었어요. 아이들을 가르쳐보고 싶어서 대학 진학 후 유아교육학을 전공했는데 졸업을 앞둔 제게 교수님이 다문화센터를 추천하셨어요. 제가 복수전공으로 사회복지학을 공부했었거든요. 계획했던 방향은 아니었는데 지금의 저를 보면 교수님이 혜안이 있으셨던 거죠. 저는 그때 제가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게 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으니까요.

💬 ‘마마포미’를 운영하게 된 것도 사회복지사로서의 경험이 영향을 끼쳤겠네요.

💬 물론입니다. 지금처럼 마마포미를 운영하게 된 계기가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며 만났던 결혼이주여성들 때문이니까요. 사회복지사로 이들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많았지만 제대로 된 도움을 줄 수 없을 때가 많아 고민이 깊었거든요. 서툰 언어와 낮은 문화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경제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지만, 당시에는 이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제공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다 한 사회적기업으로 이직하면서 본격적으로 결혼이주여성들의 자립을 위한 교육사업에 참여하게 됐죠. 바리스타양성교육, 제과제빵교육, 재봉기술교육 등을 관리했고 때론 강사로 나서기도 했어요. 재봉기술교육은 특히나 수공예에 강



한 나라에서 온 이주여성들이 즐거워하는 수업이었습니다. 우수한 학생은 보조강사로 채용하기도 했어요. 같은 나라 출신의 학생들을 도울 수 있으니 여러모로 이득이었죠. 그런데 갑작스레 지원사업이 중단되면서 저도 회사를 그만두게 됐어요. 저도 아쉬웠지만 학생들의 상실감도 컸고요. 결국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 고민하던 것이 재봉기술을 활용해 아이들을 위한 패브릭 제품을 만드는 마마포미 설립으로까지 이어졌네요. 당시에 참여했던 이들 모두가 아이 엄마였으니 자연스러운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 ‘마마포미’라는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있나요?

💬 마마포미는 회사의 이름이자 슬로건이에요. 엄마가 아이에게 주는 건강한 선물이란 의미가 담겨있죠. 아이들의 건강한 잠자리를 위해 여러 가지 침구류와 패브릭 소품 등을 직접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 아이들을 위한 제품이라 소재 선택에 특히 신경을 많이 쓰신다고 들었어요.

💬 시중에서 저렴하게 판매되는 면직물은 대부분 중국에서 OEM으로 생산되는데 피부가 예민한 아이들에



겐 자극이 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면직물은 밀도가 촘촘하지 않아서 그 사이로 먼지나 찌꺼기가 많이 끼거든요. 마마포미에서 제작하는 제품은 고밀도로 직조한 면직물을 사용해요. 또 여러 번 세척해서 불순물이 제거된 바이오워싱 기능성 원단을 사용하죠. KC인증도 받았고요. 저희 아이가 어릴 때 아토피로 고생한 적이 있어서 소재는 무조건 좋은 것으로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아이가 쓴다고 생각하면 아마 누구라도 그럴 거예요.

💬 제품을 판매하며 보람을 느꼈던 순간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 아이 담요를 구매했던 고객이 수선을 맡기러 찾아온 적이 있어요. 동그랗게 달린 장식이 떨어졌다며 다시 달아달라고 오신 거였죠. 구매한 지 3년 정도 된 제품이었는데 얼마나 열심히 사용했는지 사용감이 상당했어요. 들어보니 아이가 온종일 이 담요를 가지고 다니는데 잘 때도, 외출할 때도 손에 닿지 않으면 불

안해한대요. 아이들은 이불이나 인형에 애착을 잘 갖거든요. 그 아이에겐 저희 담요가 그랬던 거죠. 장식도 떨어지고 낡아서 새 걸로 사주겠다고 해도 싫고 오로지 그 담요여야 한다고 이야기했다는 내용을 듣는데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저희가 만든 제품이 용도적인 부분뿐 아니라 아이의 정서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더 정성을 쏟아야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 최근 판매를 시작한 출산세트가 눈에 띄어요. 어떤 제품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 아이를 낳으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세트로 구성해서 선물하기 좋게 만든 제품입니다. 기저귀 갈 때 필요한 방수패드, 수유 후 트림시킬 때 필요한 버프클로스, 메밀베개, 신생아패드, 손수건 등 총 여섯 가지 제품으로 구성돼 있어요. 최근엔 산업자원통상부의 지원사업을 받아 패키지도자인도 제작했죠. 포장이 정성스러우면 받는 사람 기분이 더 좋잖아요.



QR코드를 인식해
상생협력관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 현재 새로운 상품군을 준비 중이라고 들었어요. 어떤 제품인가요?

💬 집에서 반려견을 기르는 분들이라면 다들 배변패드를 사용하고 계실 거예요. 꼭 있어야 하는 제품이지만 대부분 1회용으로 사용하시거든요. 비싸기도 하고 환경에도 좋지 않으니깐 빨아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요. 이것보다 제조·유통공정이 훨씬 어려운 면생리대도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 출시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리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 ‘마마포미’를 시작한 후에도 교육사업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요. 어떤 수업을 운영하고 있나요?

💬 저희 주요기술인 패브릭 제품 제작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주여성들에게 재봉틀을 사용해 제품을 만드는 기술을 가르치기도 하고, 학생들에게는 자유학기제 진로체험학습의 일환으로 패브릭디자인 수업을 제공하고 있어요. 백화점 문화센터, 체험학습, 축제현장 등에서 수업하는 경우도 있죠. 코로나19 이후엔 대면교육이 어려워져서 키트를 제작해 영상을 보며 따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어요.

💬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 요즘은 대량생산되는 제품보다는 맞춤형으로 제작된 제품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패브릭 제품을 설명서나 영상을 보고 따라 만들 수 있도록 키트를 제공하는 셀프 공방을 운영해보면 어떨까 구상 중입니다. 원재료는 저희가 이미 갖고 있고, 교육 경험도 많으니깐 지금은 어떻게 해야 더 발전시킬 수 있을지 열심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상생협력관에 참여하세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중소기업의 성장을 응원합니다!



? 상생협력관 사업이 무엇인가요?

한국산업인력공단 온라인홍보센터가 예산·인력 등의 이유로 제품홍보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을 위해 마케팅·홍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상생협력관 어떻게 진행되나요?

기업 제품 등록
(정보인프라 공유)

홍보, 마케팅 지원
(판로 확산)

기업 혁신 성장
지원



기업이 직접
제품을 등록



공단 보유
홍보 채널에 홍보



제품문의 및
투자처 확보 등
혁신기업 경영성과
확대 지원

? 상생협력관을 이용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공단 정보 플랫폼 공유/개방

-기업 관계자가 직접 해당기업 정보를 등록 관리
-빠르고 정확한 신제품 기업정보 반영 가능

홍보효과 UP!

다시 여는 바다

봄이라는 단어가 자연스럽다
선명한 바다에도 봄이 차오른다

봄이 바다를 열고,
바다가 다시 봄을 연다

우뚝 솟은 섬이
자꾸만 선명해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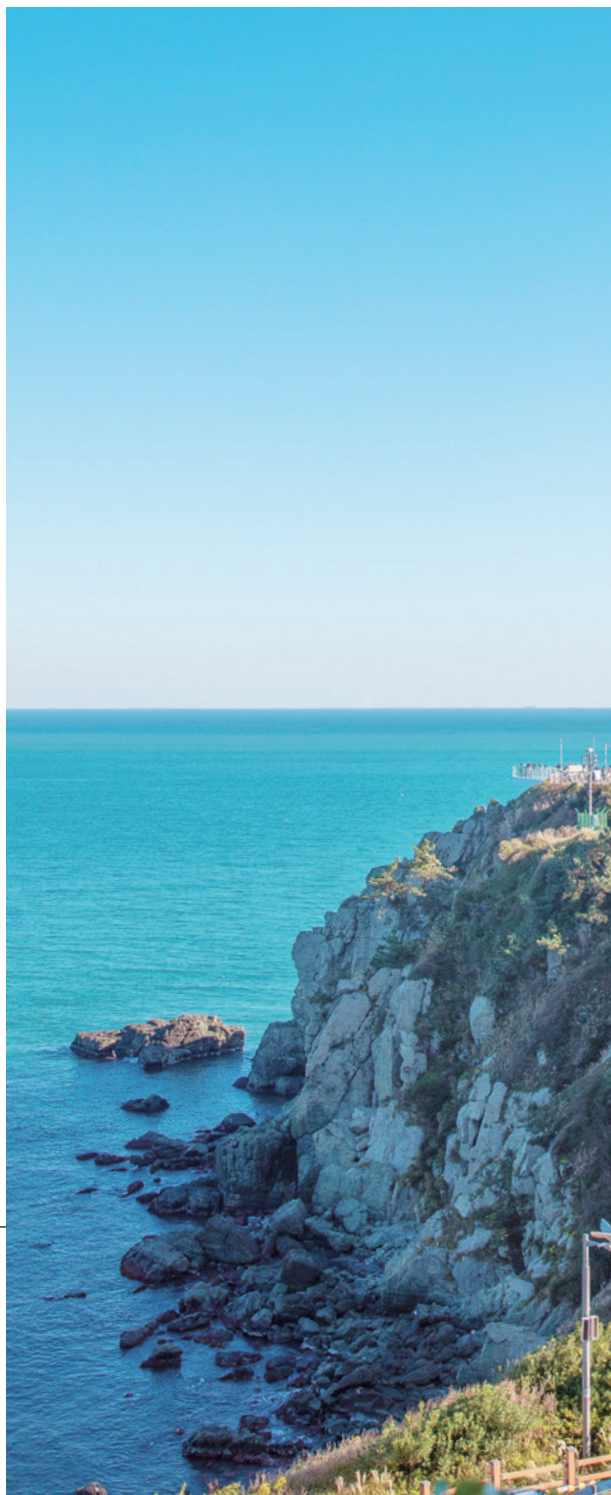
바야흐로
질은 봄이다



부산 이기대공원-오륙도

장산봉에서 동쪽 바닷가 끝에 있는 공원. 오륙도와 마주하는 산책로에 더해 '스카이워크' 조성으로 바다와 한층 더 가까워졌다. 남해를 향한 탁 트인 전망이 매우 뛰어나다. 1993년 시민들에게 개방되기 전까지 군사보호구역으로 통제되었던 곳으로, 희귀한 식물과 곤충이 서식하는 곳이다.

위치: 부산 남구 오륙도로 137 오륙도스카이워크





더 편리하고 똑똑해진 집, 스마트홈

기술혁명이 만드는 집의 미래

팬데믹으로 인해 어느 때보다 집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진 요즘. 안락하고 편안한 집에 대한 요구는 더욱 커지는 추세다. 집 안의 모든 사물이 서로 연결돼 별도의 조작 없이도 알아서 집안일을 해 내며 사용자의 요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홈에 대한 수요 역시 커질 전망이다. 5G, 인공지능, IoT 등 4차 산업혁명의 최전선에 선 기술의 융합이 만들어내는 스마트홈 비즈니스를 살펴본다.

스마트홈, 일상을 돕는 친절한 기술

매년 최신 IT·가전제품이 전시되는 세계 최대의 전자제품전시회인 CES(Consumer Electronics Show)의 2021년 주요 키워드 중 하나는 5G와 인공지능 기반의 홈코노미였다. 올해 전시 혁신상 수상작 중 하나인 삼성전자의 인공지능 청소기 제트봇은 홈코노미를 통해 미래 집안에서 펼쳐질 모습을 구체화했다. 사물인식을 위한 인공지능 솔루션과 자율주행 라이다(LiDAR) 센서 등이 적용된 제트봇은 청소는 물론, 각종 전자기기를 컨트롤하고 반려동물을 보살피는 등 다양한 집안일을 스스로의 판단으로 수행해 큰 관심을 끌었다.

이처럼 집 안의 상황을 능동적으로 인식, 이해, 예측하면서 적절한 선택을 내리거나 사용자에게 선택안을 제시할 수 있을 만큼 스마트홈 시장은 성숙해지고 있다. 이 시장의 중심에 선 것이 5G 기술. 5G는 고유의 특성인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을 통해 스마트홈

을 가능케 한다. 인공지능과 에지컴퓨팅*, eSIM* 기술 역시 중요하다. 이들이 상호적으로 작용해야 비로소 스마트홈이 쾌적한 속도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데이터 분석 기술도 중요한 부분이다. 스마트홈 시스템을 통해 집안 곳곳에서 만들어지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해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사용자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시장을 장악할 것이다.

*에지컴퓨팅(Edge Computing): 각종 단말기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중앙 클라우드 서버에 전달하지 않고 데이터가 발생한 근거리에서 실시간으로 처리해 빠른 속도를 제공하는 컴퓨팅 방식

*eSIM(embedded SIM): 기기 내부에 내장된 SIM(가입자식별모듈)으로 재프로그래밍이 가능해 기기변경 시에도 교체할 필요가 없다



스마트홈 실현을 위해 풀어야 할 숙제, 정보보안

(사)한국스마트홈산업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국내 스마트홈 시장규모는 약 22조 8,908억 원. 2025년에는 약 3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같은 장밋빛 전망은 어디까지나 다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 바로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보안에 관한 문제다. 우리는 그 어느 곳보다 집에서 기술과 깊숙이 상호작용하며 정보를 생성한다. 이를테면 스마트 스피커나 인공지능 비서는 사소한 말 한마디까지 청취하며 사용자를 속속들이 분석할 수 있고, 스마트 전등은 켜지고 꺼지는 시점을 통해 사용자의 수면 여부를 추적할 수 있다. 스마트 도어락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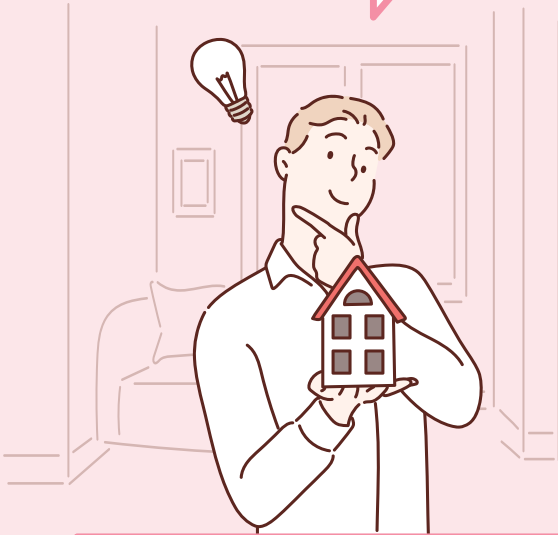
사용자가 집에 있는지 아닌지를 체크할 수 있다. 더 편한 일상을 제공하고자 수집한 데이터가 유출되는 순간 도리어 위험의 요소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데이터가 자유롭게 흐르되 그것이 집이라는 공간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봉인돼 오용되지 않도록 하는 기술 및 정책 마련이 필수적이다. 온전한 삶의 공간이기에 가장 편안해야 할 장소인 집. 5G, 인공지능 등 최신기술이 집약된 스마트홈은 앞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삶의 변화를 이끌어 갈 것이다. 이에 맞추어 산업현장에서는 또 어떤 기술과 지식을 갖춘 인재를 요구하게 될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시점이다.



SMART HOME

Smart Home

관련 직업 & 자격증 돋보기



01

스마트한 하루를 설계하는 인공지능 전문가

인공지능이 인간처럼 사고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알고리즘,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하는 직업. 로봇, 영상 및 음성인식, 검색엔진,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로 하며, 컴퓨터공학, 정보공학, 정보시스템 등의 지식을 갖추고 있으면 유리하다.

! 관련 자격

· 인공지능엔지니어: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 응용 소프트웨어를 설계, 개발하는 자격(*민간자격)

02

집에서 수집된 정보를 안전하게 정보보호 전문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 프로그램 개발뿐 아니라 해커 침입 시 중요정보 보호 및 손상을 복구하고, 모의해킹 등을 통해 취약점을 분석·보완하는 일을 한다. 소프트웨어나 모바일, 금융 관련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서 보안 담당자로 일할 수 있다.

! 관련 자격

· 정보보안기사: 정보보안 관련 시스템 및 솔루션을 개발, 주요 운영체제와 네트워크 장비 등을 운영·관리하며 조직 내 정보보안정책을 수립·관리하는 자격

03

가전과 사람을 연결하는 매개체 사물인터넷 전문가

인터넷으로 연결된 여러 사물이 서로가 생성·수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컨트롤하는 역할을 한다. 스마트홈, 스마트팜, 자동차, 헬스케어 산업에서 특히 유망한 직업으로, 다양한 기술이 융합된 분야인 만큼 협업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다.

! 관련 자격

· IoT 지식능력검정: 사물인터넷 관련 사업을 기획하고 플랫폼·네트워크 등의 기술을 개발해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자격(*민간자격)

04

가전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디자인 산업 디자이너

외적으로 보이는 미적인 부분뿐 아니라 구조·기능과 실용성까지 고려해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을 디자인하는 직업. 주로 대형가전, 가구, 조명, 자동차 등을 생산하는 기업에서 디자이너로 활동한다.

! 관련 자격

- 제품디자인기사: 다양한 조사·분석을 통해 각종 공업제품의 디자인 계획부터 개발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자격
- 서비스·경험디자인기사: 사용자의 관점에서 서비스 경험 디자인 콘셉트와 모델을 개발·운영하는 자격

05

전기세를 절약하는 똑똑한 기술 스마트 그리드 엔지니어

전기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모든 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해 전력망을 지능화함으로써 고품질 전력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 지능형 전력망에 필요한 전기 기기와 전력 제어용 센서, 네트워크 장비 등을 개발한다. 향후 발전시설이나 변전소, 전기 관련 연구소, 전기공사업체 등에서 근무할 수 있다.

! 관련 자격

- 전기기사: 합리적이고 안전한 전기 사용을 위해 전문적인 전기설비 운전 및 조작,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자격

06

데이터가 만드는 편안한 집콕생활 빅데이터 전문가

대량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관리·분석해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사람들의 행동이나 시장의 변화를 예측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제시하는 직업. 주로 기업 내 빅데이터나 마케팅 부서, 데이터 분석 전문업체, 인터넷 포털 업체, 정보통신시스템 통합 업체 등에서 근무하게 된다.

! 관련 자격

- 빅데이터분석기사: 빅데이터 분석기술과 방법론을 토대로 대용량 데이터를 구축, 탐색, 분석 및 시각화하는 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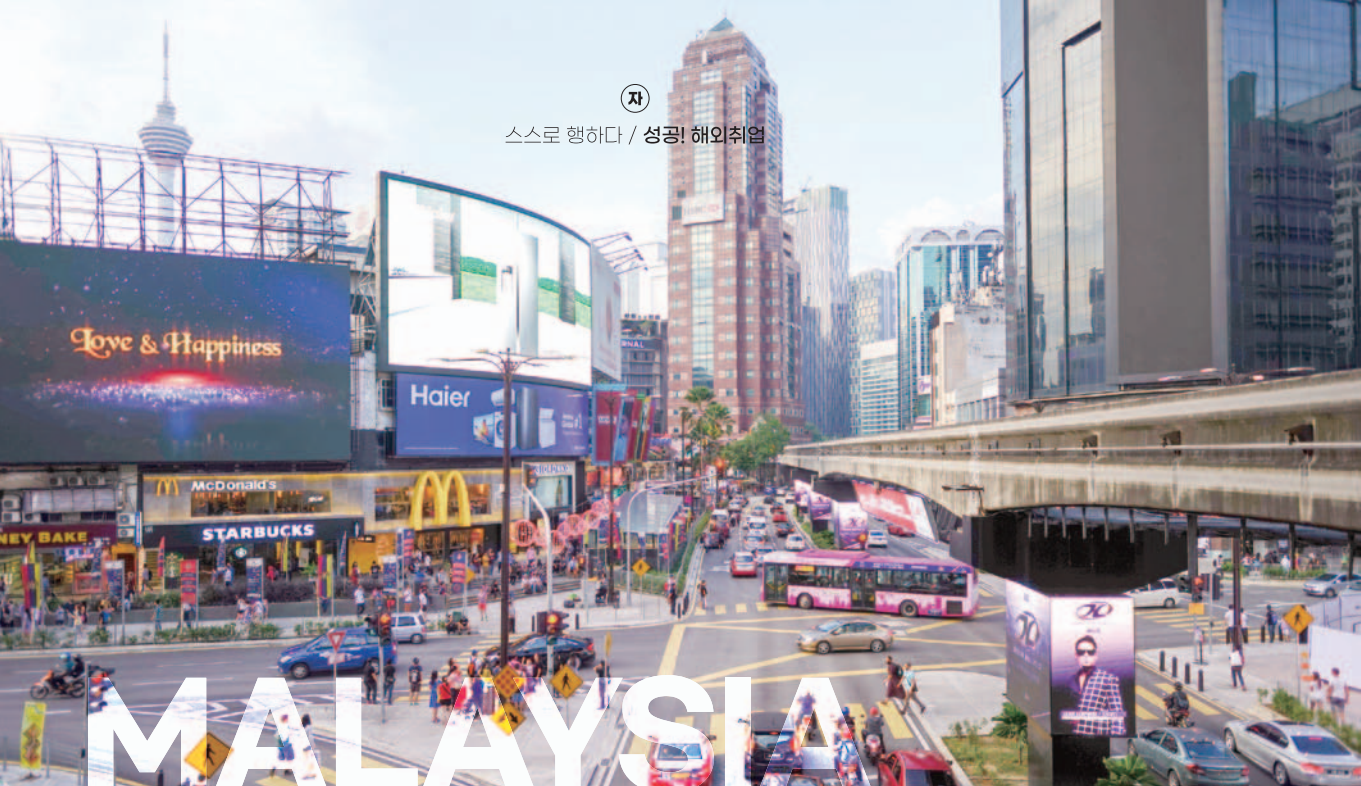
07

집과 도시 구석구석을 연결짓다 스마트시티 전문가

도시에 정보통신, 빅데이터 등의 신기술을 적용해 곳곳(교통, 에너지, 수도, 병원 등)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분석 후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직업. 도시공학, 도시계획, 정보통신 관련 지식을 갖추고 있으면 유리하다.

! 관련 자격

- 도시계획기사: 각종 예측기법을 통해 미래 인구 규모, 경제여건 등을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도시 계획 및 시설 배치계획을 수립·가시화하는 자격



Connecting the Dots!

펜팔-관광학부-해외영업 그리고 말레이시아

‘어떻게 말레이시아에 오게 됐어요?’라는 질문에 나는 늘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라고 대답하곤 했다. 하지만 돌이켜 보니 필연처럼 말레이시아에 오게 되었고, 차근차근 쌓아온 노력으로 해외 취업에 성공했다.

Choice : 펜팔에서 시작된 진로 결정

고등학교 시절 영어공부를 위해 시작한 펜팔을 계기로, 외국에 대한 관심을 두게 되어 경희대학교 관광학부 문화관광콘텐츠학과에 진학했다. 학부 시절 3년간 학교 영문 페이스북 운영 및 교환학생 동아리 팀장으로 활동하면서 외국 학생들에게 우리 음식과 문화를 소개했고, 자연스럽게 해외영업과 해외사업부문으로 진로를 결정했다. 하지만 관광학사, 인문학도, 비경상 계열 꼬리표를 달고 해외영업 사원이 되는 과정은 너무나 힘들었고,

100번이 넘는 구직활동 끝에 스킨푸드 해외사업부문에 입사했다. 스킨푸드 입사 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터키, 러시아 5개 국가를 담당했다. 해외 파트너사와 현지 시장 영업관리 및 마케팅을 하면서 어학 능력은 물론 전문적인 직무역량을 쌓았고, 이 경험은 추후 해외 취업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특히, 담당 국가 중 하나였던 말레이시아에 관한 업무 비중이 가장 컸기 때문에 시장 조사 및 국가에 대한 지식을 쌓으면서 개인적인 관심도 커졌다.

Tips : 영어 이력서 & 포트폴리오 작성

해외 구직활동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영문 이력서 작성이었다. 자유 양식에 1~2페이지 이상이 넘지 않는 공간에 나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막막했다. 무작정 Google에 영업관리 마케팅 관련 이력서, 양식을 검색한 뒤 수백 개 이력서를 검토하면서 경력과 직무에 어울리는 영어 단어와 구절을 하나씩 워드 파일에 필기했다. 그렇게 하다 보니 경력을 더 세련되게 표현하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원어민 친구에게 첨삭을 부탁해 문법

적으로도 흠이 없고 자연스러운 영문 이력서를 완성할 수 있었다.

하지만, 면접 기회는 쉽게 찾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통해 터키, 러시아 신규 매장 오픈 사진, 멀티숍 론칭 사진, 그랜드 오픈팅 이벤트 사진, 러시아 해외박람회 참가 사진 등 경력과 역량을 더 자세하고 생동감 있게 표현했다. 그 결과, 삼성전자 말레이시아 법인 마케터 직무 면접 제의를 받았고, 취업에 성공했다. 마케터 직무이기 때문에 경력과 업무 성과를 글보다는 비주얼로 표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었고, 질문도 모두 포트폴리오에 기반한 질문이었다. 해외취업 합격 후 회사 도움을 받아 offer letter, 비자 발급을 차근차근 진행했고,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이 운영하는 말레이시아 취업 & 창업 카페와 개인 YouTube 및 블로그 도움을 받아 말레이시아 취업 및 생활 정보를 쉽게 습득했다.

첫 해외 직장 : 삼성전자 말레이시아 법인 서비스 마케터

2019년 1월부터 나는 삼성전자 말레이시아 법인에서 삼성전자 서비스를 홍보하는 서비스 마케터로 근무하면서 말레이시아 전역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관리 및 마케팅 캠페인을 기획하고 실행했다. 2019년 지구의 날을 맞아 WWF 말레이시아 법인에 기부하는 캠페인 기획 및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미스터리쇼핑 집행, 무료 핸드폰 검진 및 고객 이름을 핸드폰에 새겨주는 engraving 서비스 등을 기획하고 실행하였고, 삼성전자 글로벌 법인 서비스 마케팅 우수 사례로 뽑혀 사내 매거진에 실리는 영광도 얻었다. 삼성전자가 한국 법인이었기 때문에, 주재원 직원 및 한국인 직원들이 해외 정착에 많은 도움을 주셨고, 한국어와 영어가 공용어였기 때문에 전자기기 산업 및 직무를 익히고 빠르게 업무에 적응할 수 있었다.



두 번째 도전 : Mercedes Benz Malaysia Asia & Pacific Hub

1년간 말레이시아에서 근무하면서 말레이시아 또는 싱가포르가 아시아 허브로서 물류 거점지로 많은 회사가 모여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해외 영업 경력이 있었던 나는 국제 물류 및 SCM 직무 경험을 쌓고 싶어 이직을 준비했고, 올해부터 Mercedes Benz Malaysia 아시아 태평양 허브에서 Global Supply Chain Network 팀에서 한국 시장 담당자로 근무하고 있다.

한국과 말레이시아를 잇는 다리

앞으로 계획은 Mercedes Benz Malaysia 아시아 태평양 허브에서 유일한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을 느끼고 SCM 직무에서 관리자 레벨까지 성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10년 뒤 나는 해외영업, 수출, 마케팅, SCM 및 물류 등 다양한 직무 경험을 바탕으로 창업을 꿈꾼다. 단순히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업이 아닌 한국과 말레이시아 문화의 장벽을 낮추고 한국 문화를 알리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에 도전할 것이다.

청년들이 일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2021년 새롭게 바뀐 청년 정책 들여다보기



한창 성장하고 무르익는 시기에 있는 사람을 뜻하는 청년(靑年). 이번 '취업을 완성하는 일자리 핫라인 시즌2'에서는 청년들이 일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2021년 새롭게 바뀐 청년 정책을 소개한다. 청년들의 공정한 채용과 개선된 직장 문화를 이끌어 갈 이들 청년 정책에 주목해보자.



청년의 공정한 출발을 지원합니다

공공기관 채용 절차의 객관성·투명성 강화 : 모든 공공기관에서 필기 또는 구조화된 면접(상황면접, 토론 등)으로 채용을 추진한다.

블라인드 채용 정착 :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중소기업 등 민간에까지 확산하고, 중소기업 인사담당자에게 능력 중심 채용 설계를 위한 컨설팅을 제공(2025년까지 1,250개 기업)한다. 또한, 전국 6개 권역별로 청년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 및 맞춤형 상담을 실시한다.

공정채용 컨설팅 강화 : 중앙·지자체·공공기관 등 모든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채용 단계별 지원과 집중 교육 및 자문을 실시하는 등 공정채용에 관한 컨설팅을 강화한다.



청년이 일하고 싶은 직장 문화를 조성합니다

청년친화기업 확산 : 청년들이 선호할 만한 임금 수준과 고용 안정성 등을 갖춘 청년친화기업을 매년 1,100여 개 이상 적극 발굴해 재정 및 금융 지원을 강화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일·생활의 균형 실현 : 근로시간 단축제를 단계별로 안착시키며, 가족 돌봄 및 재택 등 유연 근무를 확대한다. 또한, 가족친화인 증기업을 지속적으로 확대(2020년 4,333개 → 2025년 6,200개)하고 해당 기업에는 교육 및 컨설팅, 근로자 휴가자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근로시간 단축제 적용대상 확대 : 2020년 300인 이상 사업장 → 2021년 30인~300인 미만 사업장 → 2022년 30인 미만 사업장

성평등 문화 조성 : 육아휴직을 1회에서 2회로 분할 사용하도록 횟수를 늘리고, 임신 중 육아휴직을 허용한다. 또한, 기업을 대상으로 성별 균형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맞춤형 컨설팅을 확대 제공한다.



한국직업방송을 만나는 방법

TV SK broadband 273번, KT Olleh 252번, LG U+ 251번, skylife 189번, T브로드 210번, CJ헬로비전 230번, 디라이브 256번

- 홈페이지·유튜브 실시간 방송시청 또는 VOD 다시보기(모바일 기기도 가능)

- 세부 시청 방법 및 지역별 채널번호는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공단 직업방송매체부(052-714-8295)로 문의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한 직무책임 수행

최근 한 공공기관의 투기 의혹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정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에 따른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더욱 그 파장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듯하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그들만의 폐쇄 공간에서의 댓글 중 “부동산에 대한 식견이 있어 선제 투자를

잘만 한 것인데 왜 야단이나”라는 투의 항의 글은, 소위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하지 않고 성실하게 자신의 사업 또는 직장의 업무에만 충실했던, 그리하여 자본소득을 누리지 못한 이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유례없는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수많은 ‘벼락부자’들의 탄생을 봤고, 그들 중 상당수는 부동산 투자로 인하여 재산을 축적한 자들을 잘 알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이런 자들을 ‘운이 좋은 사람’ 또는 ‘부지런한 사람’으로 부러움의 대상으로 인식하기도 했다.

자신의 전문지식과 정보를 활용하여 투자를 잘(?)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어느 때보다 강하게 분노하는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우리



사회의 변화를 느낄 수 있다. '국민 주거 안정의 실현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라'라는 임무를 '국민'이 아닌 '자신'으로 해석하고 실천한 이들에 대한 배신감에 대한 분노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들의 행위의 부당함은 곧 토지의 취득원가를 높이고, 이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에 대하여 비난을 하지만, 이는 지극히 사소한 이유 중 하나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믿고 맡긴 자들의 배신감에 대한 분노가 더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과거에도 부동산 투기 사건들이 있었지만 이를 불로소득에 따른 탈세 문제 정도로 인식했으나 이번에는 사건의 본질을 수탁 책임자에 대한 사회적 배신, 즉 신용의 상실을 더 큰 죄악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합의의 차이가 있다고 본다.

경제적 사건이지만 경제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 신뢰의 상실이다. 이를 더 큰 아픔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변화에 대하여 우리의 법과 제도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자들은 부여된 직무 책임(Due Care)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지식과 이를 성실하게 수행하려는 의지가 필요하고, 이를 제대로 수행하도록 하는 적절한 제도적 통제가 필요하며,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 대한 예방적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이번 일련의 사태를 바라보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신용사회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그동안 소홀히 했던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새롭게 가져야 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HRDKorea MAGAZINE

사람과 성장을 이어주는
한국산업인력공단

NEWS

2021
APRIL
vol. 298

04



공단 임직원 청렴실천 서약식 개최

공단은 29일 울산 본부에서 임직원의 청렴·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임직원 청렴실천 서약식'을 실시했다. 서약에는 업무수행 시 윤리헌장, 임직원 행동강령 등 관련규정 준수, 내부정보를 활용한 사적이익 추구 금지,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 갑질행위 금지 등 내용이 포함됐다. 이날 임원 및 주요 간부들을 대상으로 성희롱 방지 특별교육이 함께 진행돼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도 다졌다. 한편, 공단은 2020년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1등급 상승, 부패방지시책평가 우수등급 달성 등 성과를 거두며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공단, 울산 중구에 창립 39주년 기념 이웃돕기 후원금품 전달

공단은 17일 오후 중구청 2층 구청장실에서 박태완 중구청장과 한국산업인력공단 허대만 기획운영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39주년 기념 이웃돕기 후원금품을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된 후원금품은 20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60만 원 상당의 떡과 두유 등 총 260만 원 상당이다. 중구는 저소득계층 40명에게 각 온누리상품권 5만 원을, 울산중구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취약계층 200여 명에게 떡과 두유를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주 자격검정 제도 우수 사례집 발간

사업주 자격검정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 중인 기업의 사례를 모은 '사업주 자격검정 제도 우수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업주 자격검정 사업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해 자체적으로 자격 검정을 시행하면 고용노동부와 공단이 자격 개발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93개 기업이 고용노동부와 공단으로부터 209개 종목의 자격을 인증받아 이 사업에 참여했다.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올해 상반기 사업주 자격검정 사업 신청도 접수 중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한국 산업인력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1년 일학습병행으로 고교, 대학 재학생 취업지원 시작

공단은 24일 대전에 있는 일학습과정개발센터에서 2022년도 고숙련 일학습병행(P-TECH) 신규 공동훈련센터 모집 설명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학습병행 고교단계 유형인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1,649개 기업에 6,452명을, 대학단계인 '고숙련 일학습병행(P-TECH)', 전문대 단계, 4년제 IPP형 일학습병행 등 3개 유형에 2,907개 기업, 6,983명이 참여하도록 지원했다.

공단 어수봉 이사장은 "일학습병행 사업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무형 인재 양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공단에서는 일학습병행 참여기업을 상시 모집하며, 궁금한 사항은 고객센터 1644-8100으로 문의 또는 일학습병행 블로그를 통해 알 수 있다.



"한국 인재 채용하러 왔습니다" 미국 H Mart 인사담당자 방문

공단은 3월 9일부터 12일까지 미국 H Mart 인사담당 임원이 한국을 방문해 채용 면접을 진행했다. 이번 채용은 유통관리 및 매장관리 직종을 대상으로 중간관리자를 뽑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를 통해 취업할 예정이다.

공단 어수봉 이사장은 "앞으로도 해외의 양질의 일자리 개척을 통해 다양한 취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독자이야기

당신의 목소리가 궁금합니다.

해외취업을 경험했던 에피소드를 들려주세요!

감동적이거나 모두를 웃게 만든 이야기를 들려주신
다섯 분을 추천해 온라인 문화상품권(3만원권)을 드립니다.

2021년
3월호 당첨자

 **김은미**

직무능력을 더하고(+), 이직률을 낮추며(-),
기업경쟁력을 곱하고(x), 기업·직원 간에
행복을 나누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송아름**

국가직무능력표준이 모쪼록 무궁무진하게
풍부하고 다양한 서비스로 자리 잡아 국민
요구에 걸맞은 고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앞으로도 계속 구축되어 나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미혜**

자신의 꿈과 적성에 맞는 직무를 탐색하고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이 뭔지,
고민해볼 수 있는 NCS! 이전 불필요한 스펙
대신 내실 있는 준비를 해보려 합니다.

 **이시현**

사실 제게는 'NCS'라는 용어 자체가 생소하고
관심 밖의 영역이었습니다. <HRD Korea>를
접하고 나서야 비로소 'NCS'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 등에 대해 알게 되었네요.

 **조영민**

능력중심사회를 최우선으로 하는 공정하고
깨끗한 정당당당 대한민국을 만드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응원합니다.

HRD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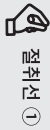
vol. 298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상단 QR코드를
인식해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번 **HRDKorea** 어떠셨나요?

엽서, 이메일(kyj626200@hrdkorea.or.kr/
이름, 연락처 기재)로 이번 호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내용 등을
기재해 보내주세요.
당첨자는 기재해주신 연락처로 안내해드립니다.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전화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

- 수집 및 이용 목적 : 엽서 당첨자 공지 및 상품 발송
- 수집항목 : 이름, 전화번호
- 보유기간 : 동의 철회 시까지, 수신 거부 시 즉시 삭제
-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할 경우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우 편 엽 서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부담발송유효기간
2016. 5. 1 ~ 9999. 4. 30울산우체국
승인 제40219호

HRDKorea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5(교동)

한국산업인력공단 홍보실

HRD KOREA 담당자 앞 T. 052-714-8195

4 4 5 3 8



절취선 ②

○ 이곳에 구멍을 뚫어서 벽에 걸어주세요

HRD Calender

04

2021년 4월 국가자격시험 일정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1	2	3 - 제19회 가맹거래사 1차 시험 - 제26회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1차 시험 - 기능장 제69회 실기시험(4.3~4.21) - 기능사 제1회 실기시험(4.3~4.21)
4	5 기사 제1회 실기시험 (기사-서비스) 원서접수 (3.31~4.5, 휴일 제외)	6	7	8 - 제18회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추가 원서접수(4.1~4.2) - 기사 제1회 실기시험(산업기사) 원서접수(4.1~4.6, 휴일 제외)	9 -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원서접수(3.29~4.2) - 기능사 제2회 필기시험 원서접수(3.30~4.2)	10 - 제18회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시험 - 제39회 문화재수리기술자 1차 시험 - 기술사 제123회 면접시험(4.10~4.20)
11	12 - 제58회 세무사 1,2차 원서접수(4.12~4.16) - 문화재수리기능사 시험(4.12~4.21) - 기사 제2회 필기시험 (기사-서비스) 원서접수(4.12~4.15)	13 기사 제2회 필기시험 (산업기사) 원서접수(4.13~4.16)	14	15	16	17
18 기능사 제2회 필기시험(4.18~4.24)	19 - 제58회 변리사 2차 원서접수(4.19~4.23) - 제29회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2차 원서접수(4.19~4.23)	20	21	22	23	24 -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 시험 - 기사 제1회 실기시험(4.24~5.7)
25 - 제9회 행정사 1차 원서접수(4.26~4.30) - 제11회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2,3차 원서접수(4.26~4.30)	26 - 제9회 행정사 1차 원서접수(4.26~4.30) - 제11회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2,3차 원서접수(4.26~4.30)	27 기술사 제124회 필기시험 원서접수(4.27~4.30)	28	29 제21회 소방시설관리사 1차 추가원서접수 (4.29~4.30)	30	

※ 자격시험 시행일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큐넷(www.Q-net.or.kr)을 참조하세요.

- 원서접수 일정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이번 호에 실린 기사 중 가장 만족스럽고 유익했던 내용과 그 이유를 적어주세요.

앞으로 <HRD KOREA>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 등 사보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을 적어주세요.

이번 호 독자이야기 부분의 의견 또는 경험담을 써주세요.(3줄 이내)



절취선 ②





능력티켓 한장으로 HiRDK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대한민국 대표 인적자원전문기관으로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평생능력개발, 국가자격시험, 해외취업, 외국인근로자고용, 숙련기술장려, 일학습병행,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블라인드 채용 등 국민의 일자리를 위한 국가 인적자원개발 지원사업으로 능력중심사회를 선도해갑니다.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이겨내자 코로나19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언제나 든든한 여러분의 HRD파트너로 함께 하겠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대한민국 대표
인적자원전문기관으로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전 국민 평생교육과 능력개발의 요람,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으로 일궈가는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꿈이자 희망입니다.
코로나19로 지친 여러분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진심으로 응원하고 위로합니다.

